
라틴아메리카는 왜 이리 불평등할까?:

조금 다른 시각의 해석

한스 유르겐 부르하르트

사회학 박사, 독일 카셀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주로 남북아메리카 관계, 라틴아메리카의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사회불평등, 사회노동 정책, 정치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지난 십 년 동안 기록한 경제적 붐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지표보다 60% 이상 높다. 만약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선택한다면, 현재 불평등도는 농업 중심 국가는 물론이고 공업 발전을 이룩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1980년대 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CEPAL 2010; López-Calva y Lustig 2010). 비록 빈곤율은 지난 십 년 동안 확실히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 인구의 15%는 최저 수준을 겨우 면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언제 다시 빈곤선 밑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가장 부유한 10%가 차지하는 국민소득은 최고 50%에 이른다(CEPAL 2010; CEPAL 2011). 극단적인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보험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재와 토지의 접근성에서도 드러난다. 여성, 아동, 노인, 특정 종족 집단의 구성원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López y Perry 2008; Milanovic y Muñoz de Bustillo 2008).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나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수준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열악하기 때문이다(Coatsworth 2008; Frankema 2009).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상이한 경제 개발 모델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경험하였으며, 한때는 복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의 지속은 더욱 이목을 끈다. 이런 상황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데, 그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는 사회 참여 가능성을 개선한다는 이론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다(Lindert 2004). 이를 종종 미래의 비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즉 시장이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민주주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평등을 이룩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Marshall 1977).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조차 민주주의와 고도의 불평등이 강고하게 맞물려 있다는 ‘라틴아메리카 패러독스’에(Burchardt 2010)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분석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에는 불충분한 자원 탓으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결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가설 가운데 어느 것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다(CEPAL 2011; Haggard y Kaufman 2008; Wehr y Burchardt 2011). 불평등, 빈곤, 선거 제도가 ‘라틴아메리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는데(PNUD 2004), 이 트라이앵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또 불평등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사회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결함, 제도적 구조의 결함, 복지국가의 결함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의 제도화된 표현, 그것도 매우 성공적인 표현으로 보인다(빈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트와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제기되는 강력한 재분배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이에 대해 분석하려면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맥락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하며, 서구와 미국의 경험과는 상이한, 각국의 고유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경험적 기반을 찾아야 한다.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확한 경험적 처방과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한 범주와 지표를 적용하여 ‘탈서구적 사회 분석’(análisis social descentrado)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결합태 모델을 적용하여 탈서구적 사회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인 도구의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1. 탈서구적 사회 분석의 조건

오늘날까지 서양의 사회 분석은 대부분 두 가지 서사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직선적인 진화 과정으로서 발전이라는 유럽 중심적인 견해로, 유럽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추상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이 근대에 이르러 성취한 경제 번영, 자유민주주의 발전, 사회 복지국가로서 평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양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역사”(one multiple repeated history)라는(Taylor 1999) 보편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Escobar 1995; Spivak y Harasym 1990). 그러나 이런 비판 역시 경험적 근거가 희박했고, 방법론적으로 정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비교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두 번째 서사 역시 진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서사에서 개인은 이익 극대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각종 제도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Weber 1964). 플라톤 이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감성(일정하지도 않고 종종 과도하다)과 이성(많은 경우에 무능하다)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부터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반드시 내면화해야 할 미덕으로서 ‘이성적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익(私益)과 관련된 범주의 발전이다. 이성은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감성(pasión)의 힘을 완화하고 다른 힘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유럽 철학은 서서히 권력욕, 탐욕, 사치, 성욕 같은 감성을 몰아낸 반면에, 각종 이익 추구는 정당화했다. 이러한 인간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배할 수 있었다. 분방한 감성은 제한된 이해관계로 변했고, 갈수록 전략적으로 사회 행동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평가 가능성을 부여하였다(Hirschman 1977).

그때부터 인간 정서(affectivo) 연구는 미시 분석의 영역으로 몰려나거나 이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요소의 연구, 즉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요소의 연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대성에 대한 두 번째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것’을 철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 사회 과정의 결정적인 동인 분석에서 정서의 차원을 재고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서는 인지적 판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이 행하는 집단적인 의례는 전적으로 무반성적이고 무의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체의 행동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정서적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집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사회집단에 맞추는 뿐만 아니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성과 감정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인간 행위는 개인주의라는 자유주의 개념으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집단 내부에서 정체성(감정적이기도 하다) 추

구 방식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이성적·감정적 행동과 개인적·집단적 행동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관계의 요인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 그의 결합태 모델은 선진국이 극복한 사회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근대화 이론에 기초한 사회 분석을 뛰어넘는 방법론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사회 발전을 ‘시·공간 안에서의 모델’로 보기 때문에(Elias 1982) 경험에 기초한 기록과 지역적 맥락의 고려가 중요했다. 또 보편적인 폐쇄인(Homo clausus), 다시 말해서 사회 밖에 위치하면서 고유한 핵심과 욕망을 지닌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복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며, 세대를 잇는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조와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행동 사이의 사회적 상호 관계는 보편적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나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엘리아스는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고전적 개념뿐만 아니라 정서에 종속된 인간이라는 개념까지도 넘어서고 있다.

관계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을 규정하고 기술하기 위해서, 엘리아스가 만들어낸 개념이 결합태로서의 사회다. 그곳에서 수많은 개인은 상이하고 미묘한 세력 균형을 통해 복잡하게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세력은 어떤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유동적인 속성이다. 이러한 세력 균형 분석과 더불어 엘리아스는 사회 질서와 질서의 정당화 형태로서 공간의 역동성을 고려하며, 세력과 사회적 배치(이성과 감정의 정식화 같은)를 언제나 중심에 두고 있다(Elias 1988).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즉 사회 내부로부터의 지속적인 배제의 문제에도 적합한 이

론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아스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두 가지 서사를 근본적으로 탈중심화한다. 먼저 엘리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계층이 어려운 의지 행위, 계획, 열정으로부터 사회 구조가 출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선형이라고 할 수 없고, 복잡한 성격 때문에 통제되지도 않으며, 예측할 수도 없는 온전히 우발적인 과정이 가시적인 패턴과 구조 아래에 가로놓여 있다. 둘째, 이성과 정서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엘리아스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구조나 역동성이 개별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 정체성, 문화 혹은 종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이러한 축 사이의 상호의존성이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을 경험적인 관찰에서 밝혀내기 위해서는 분석에 감정적인 영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라틴아메리카 결합태 분석

개인적인 관계 방식과 집단적인 관계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경험적 계층이 용이하도록 엘리아스는 세 가지 주요 범주를 개발하였다. 그 가운데 첫째는 정서가(valencias afectivas)¹⁾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록된 감정의 영향 정도로 구성된다. 상호의존성의 양과 질은 통합과 분화의 범주를 통해 표현된, 세력의 차이와 균형으로 결정된다. 통합은 사회 구조·조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독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1) 정서가 갖는 힘의 값 — 옮긴이.

폭력을 약화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집단의 생존 기능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의 분화, 특히 분업이 사회적인 상호의존성을 심화,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았다(Elias 1982). 심리발생적이고 사회발생적인 범주의 결합과 함께, 엘리아스는 경험을 통하여 특화된 과정 안에서의 개인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구조의 전환에 접근하였다.

통합은 한 집단의 생존 기능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지향하며, 결국에는 사회 구조·조직으로, 최종적으로는 국가 독점으로 이어진다. 한편 분화, 특히 노동 분업은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심화하고 확장시킨다(Elias 1982). 이러한 심리발생적이고 사회발생적인 범주를 결합하여 엘리아스는 특정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구조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²⁾ 최근의 독립 2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른 라틴아메리카는 얼마 전부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초기 조건은 유럽의 몇몇 국가와 심각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인 차이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 전 대륙이 앞서 언급한 개별성, 즉 '라틴아메리카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상징적인 예다.³⁾ 1880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실질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하였다(Cortés Conde 1992). 결과적으로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이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일인당 국민 소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확장 국면은 반세기 정도 지속되었고, 덕분에 1940년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아무리 늦어도 30년 안에 일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네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 이르렀다(Clark 1940).

2) 라틴아메리카를 결합태의 관점에서 분석한 Pérez Rivera(2010)를 참고.

3) 아르헨티나의 예에 도움을 준 에세키엘 비스톨레티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정치적인 갈등에 휩싸였고, 경제는 현저하게 악화되었다.⁴⁾ 불안정, 빈곤, 심각한 불평등 등은 정치권력 남용과 가장 최근의 잔인한 군부독재(1976~1983) 이후로 휴지기에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군부와 민간의 교대 집권’이 아르헨티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버렸다(Kvaternik 1990). 1983년 이후 민주주의가 도래하긴 했지만 사회경제적인 위기의 종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단기간의 경제적 번영에 이어 위기가 규칙적으로 재발하면서, 빈번한 정치적인 변화를 야기했다(Gerchunoff y Llach 1988).

아르헨티나 연구에 40년 이상을 바친 독일의 전문가 페테르 발트만(Peter Waldmann)은 이러한 현상이 잘 알려진 구조적인 비효율성(너무 늦어버린 농업 개혁)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비효율성(제왕적 대통령제와 허약한 법치국가)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트만은 아르헨티나 정체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지배 집단(그리고 사회)의 사고방식에서 찾았다. 이처럼 의식을 중시한 모델은, 발전을 위한 대안을 거부할 때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이기도 한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럽 이민의 결과 분열된 (국가) 정체성. 2) 전리품으로서 국가라는 주요 행위 주체들(사회운동, 노동조합운동에서 기업과 군부에 이르기까지)의 의식 3) 과도한 개인주의(이민 동기로 막스 베버가 언급한 무제한의 개인 자유라는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희소하다)⁵⁾. 4) 통합적인 발전 계획의 부재(Waldmann 2010). 이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설명은 이론적인

4) 이러한 경제적 악화는 현 상황과 연결된 예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29년 아르헨티나의 철도망은 3만 8,000킬로미터에 달했고, 이는 브라질(3만 2,000km)과 멕시코(2만 3,000km)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강대국보다 우위에 있었다(Mitchell 1993 참고). 1980년대부터 철도의 민영화를 추구한 아르헨티나는 오늘날 철도망이 5,000km밖에 남지 않았으며, 2012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온세(Once) 역 열차 사고에서 보듯이 최악의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다.

5) 몇몇 저자는 경제 분야의 지배집단이 특권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조장했다고 믿고 있다. Sabato(1998) 참고.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적인 사고로 다듬어야 하는 실험적 시도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발트만은 범주로서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를 심화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구조는, 엘리아스의 결합태 모델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패러독스와 아르헨티나 문제를 다룰 때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외부 자원의 대량 유입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던 벨 에포크(Belle époque)를 의미하는데, 거의 40년 동안 경제 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 번영을 촉진하였다. 농촌의 지배 부문은 이내 비옥한 토지를 최적의 방법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배웠고, 소수 품목의 수출품(양모, 육고기, 곡물) 바꾸니(여기에는 일상적인 생필품도 담겨 있었다)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요를 확보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대한 이민법이 뒷받침하는 이민자의 행렬은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보다 더 많았으며,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갖도 착한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의미다. 경제 붐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이로써 광범위한 중간 계층이 일찍 출현하였고, 사회 통합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고, 주체들(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의 자기준거적 행동 방식은 눈에 띄게 심화되었다. 유럽 출신 국가별로 형성된 관념적인 (가족) 관계는 지배 집단과 후기 이민자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처럼 보였다. 이러한 국내적인 이미지에서 지배 집단은 1870년대 말 이래 인구 증가를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Halperin Donghi 1976). 국민과 국가를 형성할 때부터 집단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외 개방을 선호했고, 아르헨티나 정체성 만들기, 정치 제도 발전, 갈등 해결 메커니즘 강화는 등한시하였다.

엘리아스의 범주를 이러한 결합태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원의 대량 유입과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 탓에 아르헨티나는 심도 있는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지배집단은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할 필요가 없었다.⁶⁾ 평균 소득이 모든 지배집단에게 충분한 자원(그리고 권력)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기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가 건설된 후에야 고유한 화폐, 법, 관료 제도, 수도의 위치, 그 밖의 기구가 등장했다. 지배집단(그리고 다른 집단)의 공공연한 납세 거부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쳐, 국가의 강제력과 정당성은 허약해졌다.⁷⁾ 지난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다양한 행위자는 능동적으로 국가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갈등(그리고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수출의 영향력은 언제나 절대적이었다. 국내 시장 지향적인 국면에서도 수출 부문에서 파생된 수입의 재분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사회 분화 과정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아스가 언급한 사회적 상호의존성은 단 한 번도 형성되지 않았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먼저 사회를 강화하고, 다음으로 점진적인 민주화와 권력의 비개인화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서구 국가와 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상은 왜 포퓰리즘⁸⁾과 폭력이 오늘날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중요한 정치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야만성은 1970년대 군부독재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6) 아르헨티나는 19세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연방제와 중앙집권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 올긴이.

7) 이러한 납세 거부는 지금도 여전하다. 예를 들어 2008년 농산물(특히 대두) 수출세를 소폭 인상하자 법안을 제출했을 때 주와 정부 사이에 대치 국면이 야기되었고,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총연맹(CGT) 역시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8) 마르코스 노바로(Marcos Novaro)는 국가의 대표성 결여와 1930년대부터 등장한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포퓰리즘 및 개념적으로 정반대인 1990년대의 네오포퓰리즘의 등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상존하고 있다고 시사한다(Novaro 1996 참고).

당시 라틴아메리카 군부독재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정권이었으며, 희생자만 약 3만 명(추산)에 달하였다. 엘리아스는 사회적 상호의존성은 감정 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상호의존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정치에서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엘리아스의 결합태를 적용하면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상호의존성의 특징은 강력한 대외지향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엘리트는 통합을 거부하였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해외 예치를 선호하였다.⁹⁾ 또한 여기서 지노 헤르마니가 이미 1960 년대에 지적한 것처럼(Germani 1962) 아르헨티나만의 소비 형태와 생활 양식이 형성되었다. 한편 비공식 고용(오늘날 거의 50%에 육박하는 경제 활동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다)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르헨티나 사회 구조의 분화가 지배집단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우선순위도 아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외 접촉에서 충분한 보상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엘리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르헨티나의 대외지향성(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외지향성)은 상대적으로 허약한 상호의존성을 형성했으며, 지금까지도 사회 결속의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이 경우 결합태 모델이 보여주는 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대외지향성이 구조적인 자극 또는 강제 탓이 아니라 정서적인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서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배 그룹은 비전을 재확인하고, 전 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바꿔 말해서 장기간에 걸친 대외 줄서기가 가능했던 것은 세계 시

9) 예를 들어 경험에 기초한 분석은 자본 도피와 아르헨티나의 외채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외채를 통해 국내로 1달러가 유입되면, 자본 도피의 결과로 1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간다(Basualdo y Kulfas 2000 참고).

장이나 헤게모니를 장악한 담론과 담론 대표자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지속적인 대외지향성 — 그 기초는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전통적인(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엄청난 적응력인데, 주기적으로 외국 신모델 —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 을 수용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실패한 발전 전략의 무덤”으로 전락했다(Boeckh 2002).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결합과 문제를 분석할 때도 대다수 라틴아메리카인과 지성계는 아직도 일차적인 책임을 외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¹⁰⁾

엘리아스의 결합태 모델로 라틴아메리카 패러독스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대외지향성에 대해 경험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감정 차원을 포함시킬 수 있고, 내적 행태(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를 설명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상호의존성 고리의 특징은 뚜렷한 계층화, 중요 집단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통합 과정이 얼마만큼 자본주의적인가 하는 문제제기가(그리고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Weis 2010 참고). 엘리아스는 유럽의 발전 과정을 통해 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을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 같은 결합태는 비자본주의적 사회 조직을 반영하거나, 다른 지배적인 양식과 동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합태의 모델이 국가나 시장이나 행위 주체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질문은 아주 적절한 듯이 보인다. 게다가 결합태 모델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다른 관점에서 전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10)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식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여론도 2001년 경제위기는 국제 금융기관과 이와 연계된 지역 금융기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다.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으면서도 비판적 분석은 회피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정서가를 계속 저평가한다면, 차세대의 경제 전략, 훌륭한 거버넌스의 실행, 사회개혁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소하지 못할 것이다.

3. 불평등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전망

결합태 모델은 라틴아메리카 패러독스처럼 개별 사회와 맥락의 고유한 논리를 고려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엘리아스는 근대화 이론으로 대표되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분석을 멀리했지만 특유의 매력도 없지 않다. 바로 구조적 형태의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엘리아스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비록 결합태 모델이 사회 역동성을 비교하려는 것이지만, 범주와 방법론적인 개념은 최근의 학문 성과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설명 모델에 근거한 인류학적 가설은 논쟁거리였다. 사회적 행위를 기본적으로 지배해야만 안전한 존재인 타자(자연, 인간)에 대한 개인의 의고적인 두려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명화 과정에 대한 엘리아스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정적 행위 동기는 자기통제의 중심 범주를 차지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한편 정서적인 행위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엘리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분석으로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운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Burchardt y Öhlschäger 2012). 나아가서 라틴아메리카 하층민·중산층의 대외지향성은 어느 정도이며, 자자손손 대외지향성이 유지되는 원천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서양 문명’의 발전과 고도의 정서 통제 사이의 관계다. 왜냐하

면 20세기의 유럽 사회가 보여준 파괴적인 성향과 폭력 과잉은 단순한 일시적인 후퇴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문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문명’ 탓이다(Baumann 1989).

그러므로 사회 분석에 정서 차원을 통합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물질적인 자원에 눈을 돌려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저축율과 투자율, 부의 분배 혹은 재정 정책의 합법성 등에서 개인 또는 집단과 사회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과도한 이윤과 부패가 오명과 수치를 의미하거나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풍부한 부존자원에 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지식 엘리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를 이루기 위한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인간 정서의 분석은 두려움보다는 쾌락(호감과 같은)이 우선이다(Bodei 1995). 예를 들어 사회 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아스는 기본적으로 통합과 분화의 범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소속과 통합은 내부 폭력의 포기뿐만 아니라 공감과 연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 조직과 정치 모델(가부장제, 포퓰리즘, 사회운동 등)에서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 이론을 탈중심화하려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현재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Walby 2009). 19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세입자 시위, 에비타의 출현과 군부독재 시기의 5월 광장 어머니회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국가(또는 지역) 발전은 언제나 여성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Potthast 2012). 정서가의 범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합의 범주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기능적 역할을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상과 동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화의 범주에서는 남녀 직위와 직업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성별 구성의 특수한 양태와 같은 사회적 귀속성(social adscription)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수반에 오른 여성의 수적 증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물론 표출된 관념은 결합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정치 분석에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개념 도구로서 결합태를 제시한 엘리아스가 설정한 방향과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합태 모델은 특수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 중심주의적인 사회 분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맥락에 고도로 민감한 결합태 모델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고유의 전망, 따라서 훨씬 희망적인 전망으로 미래의 도전에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 남진희 옮김

원제와 출처

Hans Jürgen Burchardt. 2012.

“¿Por qué América Latina es tan desigual? Tentativas de explicación desde una perspectiva inusual.”

Nueva Sociedad 239: 137-150.

참고문헌

- Basualdo, Eduardo y Matías Kulfas. 2000. “Fuga de capitales y endeudamiento externo en la Argentina.” *Realidad Económica* 173: 76-103.
- Baumann, Zygmunt. 1989. *Modernidad y holocausto*. Madrid: Sequitur.
- Bodei, Remo(1995), *Una geometría de las pasiones*. Barcelona: Aleph.
- Boeckh, Andreas(2002), “Die Ursachen der Entwicklungsblockaden in Lateinamerika: Einige entwicklungstheoretische Mutmaßungen” *Leviathan* 30(4): 509-529.
- Burchardt, Hans Jürgen. 2010. “The Latin American Paradox: Converge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ocial Exclusion.”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3: 40-51.
- Burchardt, Hans Jürgen y Rainer Öhlschäger, eds. 2012. *Soziale Bewegungen und Demokratie in Lateinamerika-Ein ambivalentes Verhältnis*. Baden-Baden: Nomos.
- CEPAL. 2010.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0*.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CEPAL.
- CEPAL. 2011.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1*.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CEPAL.
- Clark, Colin. 1940.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an.
- Coatsworth, John. 2008. “Inequality, Institution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0: 545-569.
- Cortés Conde, Roberto. 1992. “El crecimiento de la economía argentina, 1870-1914,” en Leslie Bethell. *Historia de América Latina. Vol. 10, América del Sur 1870~1930*. Barcelona: Crítica.
- Elias, Norbert. 1982. *Sociología fundamental*. Barcelona: Gedisa.
- Elias, Norbert. 1988. *El proceso de la civilización. Investigaciones sociogenéticas y psicogenéticas*.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Escobar, Arturo.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ankema, Ewout. 2009. *Has Latin America Always Been Unequal? A Comparative Study of Asset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Leiden, Boston: Brill.
- Gerchunoff, Pablo y Lucas Llach. 1988. *El ciclo de la ilusión y el desencanto: un siglo de políticas económicas argentinas*. Buenos Aires: Ariel.
- Germani, Gino. 1962.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De la sociedad tradicional a la sociedad de masas*. Buenos Aires: Paidós.
- Haggard, Stephen y Robert Kaufman. 2008. *Development,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Latin America,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perin Donghi, Tulio. 1976. “¿Para qué la inmigración? Ideología y política inmigratoria y aceleración del proceso modernizador. El caso argentino 1810-1914.” *Jahrbuch für Geschichte von Staat, Wirtschaft und Gesellschaft Lateinamerikas* 13: 437-450.
- Hirschman, Albert Otto. 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Humberto y Guillermo Perry. 2008. “Inequality in Latin America: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4504, Washington DC.
- Kvaternik, Eugenio. 1990. *El péndulo cívico-militar: la caída de Illia*, Buenos Aires: Tesis.
- Lindert, Peter H.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ópez-Calva, Luis y Nora Lustig. 2010. *Declining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 Decade of Progress?*. New York, Washington DC: PNUD(Programa de las Naciones Unidas para el desarrollo);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arshall, Thomas H. 197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anovic, Branko y Rafael Muñoz de Bustillo. 2008. “La desigualdad en la distribución de la renta en América Latina: situación, evolución y factores explicativos.” *América Latina Hoy* 48: 15-42.
- Mitchell, Brian R. 1993.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The Americas 1750-1988*. Basingstoke: Macmillan.
- Novaro, Marcos. 1996. “Los populismos latinoamericanos transfigurados.” *Nueva Sociedad* 144: 7-8.
- Pérez Rivera, Héspen Eduardo, ed. 2010. *Nobert Elias. Un sociólogo contemporáneo. Teoría y método*. Medellín: La Carreta.
- PNUD(Programa de las Naciones Unidas para el desarrollo). 2004.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Hacia una democracia de ciudadanas y ciudadanos*. Buenos Aires: Alfaguara.
- Potthast, Barbara. 2012. “Frauen und soziale Bewegungen in historischer Perspektive.” En Hans Jürgen Burchardt y Rainer Öhlschlager, eds. *Soziale Bewegungen und Demokratie in Lateinamerika-Ein ambivalentes Verhältnis*. Baden-Baden: Nomos. 43-57.
- Sábato, Jorge. 1998. *La clase dominante en la Argentina moderna: formación y características*. Buenos Aires: Cisea.
- Spivak, Gayatri Chakravorty y Sarah Harasym, eds.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London: Routledge.

- Taylor, Peter. 1999. *Modernities: A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Walby, Sylvia. 2009. *Globalization and Inequalities. Complexity and Contested Modernities*. Los Angeles: Sage.
- Waldmann, Peter. 2010. *Argentinien-Schwellenland auf Dauer*. Hamburg: Murmann.
- Weber, Max. 1964. *Economía y sociedad. Esbozo de sociología comprensiv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Wehr, Ingrid y Hans Jürgen Burchardt. 2011. *Soziale Ungleichheiten in Lateinamerika - Neue Perspektiven auf Wirtschaft, Politik und Umwelt*. Baden-Baden: Nomos.
- Weis, Anita. 2010. “El proceso de individualización de los obreros industriales en Colombia.” En Hésper Eduardo Pérez Rivera, ed. *Robert Elias. Un sociólogo contemporáneo. Teoría y método*, Medellín: La Carreta. 117-131.